

올해 폭염 전년보다 길다

전북도, 재난관리기금 2억9500만원 긴급투입... 피해대비 만전

전북도는 17일 폭염 특보가 연일 계속 발령되는 등 도내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주시 등 8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2억9500만원을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관리기금 긴급 투입은 전년도 대비 20일정도 이른 6월 16일 첫 폭염주의보가 발생 하는 등 7월 중순 현재 평균 폭염특보일수가 8.6일로(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2일 증가) 폭염기간 장기화 예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폭염피해 대비를 위하여 지난 6월말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주시 등 8개 시·군(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장수, 임실, 부안)에서 요청한 도 재난관리기금 1억4750만원을 긴급 편성 해 교부 완료했다.

지원되는 재난관리기금은 주민과 관

객이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주변에 '그늘막 쉼터' 설치와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살수차 운영에 사용 될 예정이다.

'그늘막 쉼터'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도시 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설치 될 예정이다.

전주시 다가고 사거리와 덕진광장 사거리 등 33개소, 익산시 익산역 등 주요 횡단보도 앞 32개소, 장수군 8개소 등 총 73개소를 설치 할 방침이다.

또한, 살수차량 10대를 임대 최대 40일동안 도심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살수 기간은 여름철 폭염기간중 폭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며 도로변 살수 등으로 도시 교온현상 최소화와 폭염

피해 예방, 노년 변형방지와 교통사고 예방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전북도는 올해 폭염기간이 전년대비 장기화 될 예정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별도로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 2억2000만원을 건의해 14개 시·군에 그늘막 쉼터 확대 설치, 공공시설 열음비치, 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 배포 등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도 이현우 도민안전실장에 따르면 "호우·태풍·가뭄·폭염 및 가축 전염병 뿐아니라 모든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서남대 정상화 하라” 단식투쟁 돌입

교육부 서울시립대·삼육대 인수안 반려결정 반대 시위

교육부가 최근 서남대 정상화 계획과 관련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정상화 방안에 재정기여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이 없거나 현실성이 없다고 해 반려 결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폐교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라북도의회, 남원시의회 및 서남대학교,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에 대한 조속한 사분위 상정이 될 때까지 교육부 앞 단식투쟁 및 촛불집

회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14일에는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세종시 교육부를 방문해 최근의 서남대 사태에 대한 항의방문을 하고 시위를 진행했다.

이어 남원시의회 이정린 의원과 서남대 김철승 교수협의회장, 서남대 교수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상호 교수는 7월 14일부터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안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4일째 이어가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로컬푸드 농산물 잔류농약 229종 검사결과 1건 부적합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20여곳의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139건의 로컬푸드직매장 유통 농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성분 229종을 검사한 결과 이중 1건(0.7%)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도 전국 농산물에 대한 부적합률인 1.2%와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수준이지만 도민에게 잔류농약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는 상추, 배추, 깻잎, 옥수수 등 조리하지 않고 먹는 엽채류 및 엽경채류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한 부적합한 농산물은 즉시 회수 폐기 및 행정조치 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김진성 기자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 된다.

행정자치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들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의 경우 7월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내년 1월말까지 6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말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속·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대체

취득 건축물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수해로 말실되거나 파손된 자동차는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말실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김현기 행정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주민이 이런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을 비롯한 소셜벤처들의 경영능력 향상 및 창업조기 도약을 지원하는 소셜캠퍼스 온 전주 개소식이 17일 전주 효자동 DNB빌딩 5층에서 열린 가운데 진흥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축하 떡 케익을 커팅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 '온 전주' 문 활짝

소셜벤처 경영능력 향상·창업초기 도약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기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혁신기업(이하 소셜벤처)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기업 진입 확대를 위해, '소셜캠퍼스 온(溫) 전주'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열고, 1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전북권의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해 소셜캠퍼스 온(溫)이 제공하는 사무 공간 및 코워킹 스페이스·멘토링·네트워킹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정동영 의원, 정운천 의원,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황현 전라북도의회 의장, 서철교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장, 임수진 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소셜캠퍼스 온(溫) 전주'의 출발을 축하했다.

'소셜캠퍼스 온(溫) 전주'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을 비롯한 소셜벤처들의 경영능력 향상 및 창업초기 도약을 지원하고자 조성된 통합지원센터로써, 개소되는 17일부터 창업입주공간·협업공간 및 회의실 등 제반시설을 제공하고 교육·멘토링·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원해 소셜벤처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

또한, 일반인 대상 사회적기업 창업 강좌 개설 등을 제공하고 창업 단계와 업종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강좌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소셜캠퍼스 온(溫) 전주'에는 고정된 사무공간을 활용하는 45팀, 오픈 스페이스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5팀, 총 50팀이 입주하게 되며, 중간 평가 및 연장을 통해 최대 2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전통문화 수도에 걸 맞는 문화컨텐츠 모델을 구축해 '한국스타일'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주)연을담다, 장시간 진료대기로 인한 사회·보건문제 해결을 위해 ICT기반 모바일 스마트 진료대기 시스템을 제공하는 (유)휴잇, 장애인들에게 문화교육과 취미활동,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유)좋은이웃 등, 입주하는 50개의 소셜벤처들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전북의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성기 차관은 "소셜캠퍼스 온(溫) 전주는 전북의 혁신을 이끌어갈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의 꿈을 견인해주는 성장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문건위, 문화체육관광국 등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7일 제34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갖고 문화체육관광국,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정업무에 대한 낱신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최은희 의원(비례)은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모두가 예상한 일이지만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중국 이외 다른 지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을 촉구했다.

양성빈 의원(장수)은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 추진은 빠른 추진보다 긴 안목으로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TF

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인 사업발굴을 주문했다. 최진호 의원(전주6)은 "투어패스 판매소 현황을 보면 시군별로 들쭉날쭉하며 개소수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성공적인 투어패스 정착을 위해 판매소를 확충하고 판매실적을 체크하는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원수 위원장(임실)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투어패스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